

한국어 양태의 표현수단 체계에 대한 고찰

정 우 현*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문법의 기술을 위해 필요한 의미범주인 양태(modality)의 정의와 일반적으로 양태에 대한 문법범주로 알려진 서법(mood)의 정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에서 양태적 의미가 표현되는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양태와 서법에 대한 논의는 인구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Jespersen(1924)에서 본격적으로 양태의 의미 영역이 다뤄지기 시작한 이래로, Fillmore(1968), Lyons(1977), Palmer(2001) 등 이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특히 인구어에서 진행된 양태에 대한 논의는 서법(mood)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뤄지곤 했는데,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상태의 의미영역으로, 서법은 양태가 동사의 굴절을 통해 표현된 문법범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Palmer(2001)을 통해 이러한 서법이 직설법(indicative), 가정법(subjunctive), 명령법(imperative)으로 체계적으로 등장하는 인구어와 달리 다른 언어들에서는 주로 서설법(realis)과 서상법(irrealis)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역시 개별 어휘나 접사 등에 의해 양태적 의미가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이 밝혀지며, 서법을 양태에 대한 문법범주 전체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어의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의 전통적 체계에 대한 이름으로 사용할 것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한국어의 양태와 서법에 대한 논의 역시 고영근(1986), 이선웅(2000), 임동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훈(2003, 2008), 박재연(2004)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태라는 의미범주의 영역이 ‘화자의 정신적 상태(혹은 태도)’ 등의 모호한 용어를 통해 표현되므로 명확하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며, 한국어가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서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고는 양태와 서법을 정의하고 이를 한국어에 적용시키고자 한 시도들을 폭넓게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양태적 의미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이되 화행과 관련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태의 하위부류로는 박재연(2004)의 논의를 따라 인식양태와 행위양태를 인정한다. 또한 양태적 의미가 한국어 내에서 표현되는 문법범주를 양태법(modal system)이라 칭하고 그 표현수단에 따라 서법과 비굴절적 양태법의 범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어에서 양태가 표현되는 문법적 장치로는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보조사, 우언적 구성¹⁾이 있다. 서법은 일반 언어학에서 보편적으로 동사의 굴절에 의한 양태적 의미의 표현만을 지칭하는 용어였기에 한국어에서도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를 통한 양태적 의미의 표현을 서법으로 칭하며, 우언적 구성이나 보조사 등 동사의 굴절형이 아닌 수단을 통한 양태적 의미의 표현은 비굴절적 양태법으로 칭한다. 서법은 다시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에 의해 표현되는 비화행적 서법과 종결어미를 통해 표현되는 화행적 서법으로 나뉜다. 명사나 부사 등 어휘범주 혹은 어순이나 억양 등에 의해서도 양태적 의미가 표현될 수는 있으나, 이들은 문법범주로 볼 수 없어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1) 본고에서는 보조 용언이나 의존 명사 등으로 이루어진 우언적 구성 역시 일부 문법범주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2.2. 참고.

II. 문법범주와 문법적 장치의 범위

1. 문법범주의 정의와 범위

본격적으로 양태와 그 표현수단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고에서 사용할 용어인 문법범주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법범주는 문법 형태소에 의해 표현된 문법적 요소를 의미하는데, 넓게 본다면 준문법형태소 역시 인정한다. 한국어의 문법범주로는 시제, 상, 높임법, 피동, 사동 등이 존재하며, 준문법형태소에 의한 부정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의미범주와 문법범주는 시간과 시제의 관계, 혹은 셈과 수의 관계처럼 쌍을 이루고 있다.

문법적 장치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제약은 다소 느슨한 점이 있어 어떠한 것을 문법범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문법적 장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곤 한다. 가령 한국어가 ‘-았-’을 통해 과거를 나타내어 시제의 범주가 존재하는 시제 언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겠-’을 미래시제의 표지로 두어 과거-현재-미래의 3분 체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문숙영(2005: 8-9)에 따르면 한국어의 시제 체계에 대한 견해는 과거-현재-미래의 3분 체계, 과거-비과거의 2분 체계, 과거-현재의 2분 체계, 완료-비완료 체계 등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겠-’이나 ‘-더-’를 시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문숙영(2005: 80)은 ‘-겠-’에 시제적 쓰임이 존재하나 양태 범주에 더 적합하다고 보아 한국어의 시제 체계를 과거-비과거의 2분 체계로 보는 입장이며, 박진호(2011: 296-297)은 ‘-을 것아-’와 ‘-겠-’이 미래 시제의 필수적인 문법요소는 아니지만 미래사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현재-미래의 3분 체계를 주장한다. 이 경우는 우연적 구성을 통한 문법범주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비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제에 있어서도 문법범주의 문제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양태와 관련한 문법범주의 문제와는 양상을 달리한다. 적어도 시제라는 문법범주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양태에 관해서는 서법이라는 문법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터 다양한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

2. 문법적 장치로서의 우언적 구성

본고에서도 박진호(2011: 298-299)와 같이 우언적 구성을 문법범주의 장치로 인정한다.²⁾ 우언적 구성은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양측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문법화가 진행된 문법요소에 비해 의존성이 뚜렷하지는 않더라도 소수의 항들로 구성된 닫힌 체계를 이루며 특정한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전형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를 양태법의 요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호(2011: 316)은 서법은 일반 언어학계에서 관행적으로 동사의 굴절형으로 실현되는 경우만을 지칭하고 이는 소수의 항 중 필수적으로 선택되어 실현된다고 지적하며, 우언적 구성은 이처럼 딱 짜인 체계를 이루지 못하므로 서법의 체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박진호(2011)에서는 서법을 양태적 의미가 문법적 장치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를 동사의 굴절형으로만 표현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동사의 굴절형 외에도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가 존재한다는 본고의 논의와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도 엄밀한 의미의 서법 체계에는 우언적 구성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지만, 우언적 구성 역시 문법적 장치로서 양태법의 요소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III. 양태의 정의

1. 전통적 논의

Jespersen(1924: 425-435)는 서법(mood)은 문장 내용에 대하여 화자가 갖는 어떤 심적 태도를 표시하며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가 동사의 형태에 나타날 경우에만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개념적 범주로서의 서법

2) 박진호(2011: 299)에 따르면 상은 세계의 많은 언어에서 우언적 구성으로 표현되는 일이 많고, 언어학계에서는 이미 관습적으로 이를 문법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notional mood), 즉 본고에서 다루는 양태의 의미영역은 의지의 요소를 포함한 것과 의지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데, 전자에는 명령(jussive), 강제(compulsive), 의무(obligative), 권고(advisory), 간원(precative), 권장(hortative), 허가(permissive), 약속(promissive), 기원(optative), 소망(desiderative), 의도(intentional)가 속하고, 후자에는 필연(apodictive), 당연(necessitative), 단언(assertive), 추정(presumptive), 의심(dubitative), 가능(potential), 조건(conditional), 가정(hypothetical), 양보(concessional)가 속한다고 제시한다.

Fillmore(1968)은 격(case)에 대한 선행논의로 문장을 ‘명제+ α ’로 분석하며 문장 내에서 명제에 붙어 실현되는 α 를 양태로 처리하였는데, 이선영(2014: 305)는 이와 같은 분석은 양태의 의미영역이 명제의 사실성을 한정하는 문법 범주로부터 화용까지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갖게 할 것이라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Fillmore(1968)의 분석에 따르면 문장에서 명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양태가 되는데, 이를 하나의 범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도 양태가 문장 내에서 명제를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범주라고 규정하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Lyons(1977: 452)는 양태(modality)를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혹은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 혹은 태도(his opinion or attitude towards the proposition that the sentence expresses or the situation that the proposition describes)”로 정의하고 있는데, Jespersen(1924)의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상태라는 논의를 잇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양태의 정의가 현재 가장 전형적으로 알려진 양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Palmer(2001)은 양태를 “사건을 기술하는 명제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양태의 의미영역으로는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와 증거양태(evidential modality)를 묶은 명제양태(propositional modality), 그리고 의무양태(deontic modality)와 동적양태(dynamic modality)를 묶은 사건양태(event modality)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서 고려해봤을 때 양태에 대한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범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가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한다. 고영근(1986: 260)은 양태를 “화자의 태도와 관련되는 의미영역”으

로 보고 있으며, 이선웅(2001: 327)은 양태를 “화자가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문장 내에서 표현하는 심리적, 정신적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박진호(2011: 310) 역시 양태를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사태에 대한 주관적 태도/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로 정의하여 이들과 결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들은 ‘명제’, ‘화자의 심리적 태도’ 등 모호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화자의 태도를 아주 좁게 본다면 박재연(2004: 66)과 같이 사실성-비사실성 역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명제 자체의 성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양태의 의미영역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를 아주 넓게 본다면 Fillmore(1968)에서의 정의와 같이 문장 내에서 명제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게 되어 시제, 상, 사동, 피동, 높임법 등등을 모두 양태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양태의 표현수단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양태의 정의를, 특히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한정지를 필요가 있다.

2.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

박재연(2004: 24-31)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서 출발하여 양태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내리기를 시도한다. 양태의 기본적인 속성이 명제에 대한 한정(qualification)에 있다고 본 것인데, 이때의 한정은 주관적인 성격을 갖기에 시제적 한정과 같이 필수적 성격을 갖지 않고 화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양태 의미의 담지자를 일반적으로 화자로 보는 것과 달리 의문문에서는 청자도 양태 의미의 담지자로 등장한다고 하며,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내린 후 박재연(2004: 32-35)에서는 양태를 화/청자 지향적 양태와 주어 지향적 양태로 구분하여 설명한 후 양태와 연관되는 의미를 갖지만 양태 의미의 담지자가 화/청자가 아닌 문장의 주어일 경우 이는 문장 주어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양태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야 하-’나 ‘으려고 하-’와 같이 주어의 의무나 의도를 나타내는 형식은 준-양태 형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태의 정의는 본고의 3.1.에서 이미 언급했듯 명제의 사실성-비사실성 역시 배제한다는 것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좁은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재연

(2004)는 한국어에서 서법을 따로 문법범주로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아 양태를 의미범주이자 동시에 문법범주로 기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박재연(2004: 44)의 양태는 그 하위부류로 인식양태와 행위양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인식양태는 명제의 내용을 정보의 내용으로, 행위양태는 명제의 내용을 행위의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박재연(2004: 48)은 의무양태 대신 행위양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에는 의무양태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의도, 후회, 능력을 포함할 수 있기에 더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윤석민(2000: 44)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명제에 대한 인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그것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태도”로 나누어 이들을 한 표현이 갖는 두 층위의 양태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자는 화행과 무관하게 서법에 의해 실현되며, 후자는 화행을 고려하여 문장종결법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윤석민(2000: 43)은 본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Lyons(1977: 452)의 양태 정의를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에 대한 태도”와 “명제가 묘사하는 상황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뿐만 아니라 명제가 담화상황에서 갖는 화행에 대한 화자의 태도 역시 양태적 의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남기심(2001: 385)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문법적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서법으로 정의하며, 이것이 화·청자에 대한 태도인 의향서법과 화자의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인 양태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의향서법에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 속하는데, 양태라는 용어를 의미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논의에서의 서법의 의미영역을 양태라고 본다면, 화자의 태도라는 범주 하에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화행과 관련한 의미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동훈(2008: 219)는 양태를 “명제의 사실성(factuality)과 실현성(actualisation)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표현된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임동훈(2011: 330)은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직설법이 가정법 등과 대립되기도 하지만 의문법 등과 대립되기도 한다면, 서법을 단언적인 것과 대립하는 것만이 아닌 평서적인 것과 대립하는 것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서법의 범주에는 화행 표지가 포함될 수 있고, 따라서 양태의 의미영역에 화행이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범주이되 명제의 화행과 관련된 의미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양태는 그 하위부류로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인식양태와 행위의 내용과 관련된 행위양태를 가진다. 박재연(2004: 53, 57)의 논의를 따라 인식양태에는 명제의 확실성·개연성·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지각, 추론, 전언, 이미 앞, 새로 앞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행위양태에는 의무, 제안, 기원 등과 더불어 기존의 의무양태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의도, 후회, 능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서양 문법에서 전통적으로 양태의 문법범주로 다루어진 서법이 임동훈(2011)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단언적인 것뿐 아니라 평서적인 것과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화행과 관련된 설명, 감탄, 의문, 약속, 허락, 경계,³⁾ 명령, 청유도 양태적인 의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화행과 관련된 양태적 의미들은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청자를 고려하며 화행적 의미를 드러내는데, 윤석민(2000: 57-58)의 논의에 따라 설명, 감탄, 의문은 문장의 명제를 화자 혹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예측하는 정보에 관한 것으로 보아 인식양태에, 약속, 허락, 경계, 명령, 청유는 화·청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아 행위양태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양태의 정의는 상대적으로 넓은 정의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의 양태 정의에서 화행과 관련된 의미를 제외한 것이 박재연(2004, 2009), 박진호(2011) 등에서 정의되는 좁은 의미의 양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좁은 의미의 양태와 본고에서의 화행과 관련된 양태는 화행의 여부로 분명히 차이를 보이지만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큰 의미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더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화행을 양태의 의미영역에서 배제한 기술보다 전통적인 서법 체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경계는 윤석민(2000: 193)에 따르면 “화자가 청자에게 일어날 행동에 대하여 걱정이거나 안타까움 등의 주관적 정서를 담아 전달”하는 의미를 갖는다.

IV. 양태법 체계

1. 양태적 의미의 표현수단

전통적으로는 의미범주인 양태에 대한 문법범주로 서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한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서법은 Jespersen(1924) 이래로 인구어에서의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혹은 다른 언어들에서의 서실법, 서상법처럼 동사의 굴절형에 의해 양태적인 의미가 실현되는 것만을 지칭했다. Palmer(2001)의 제2판 서문에는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범주의 적절한 이름은 ‘양태’라며, ‘서법’은 직설법, 접속법 등 인구어에 존재하는 범주들의 전통적인 이름에 적합함을 밝힌 바가 있기도 하다. 또한 Palmer(2001: 104)에선 양태 체계(modal system)와 서법 체계(mood system)를 구분하여 서술하며 양태적 의미가 서법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님을 말하기도 했다.

한국어에서 양태적 의미가 표현되는 수단으로는 문법적 장치로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보조사, 우언적 구성, 종결어미가 있으며, 그 외 양태부사 등의 어휘적 장치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양태적 의미가 문법적 장치로 표현되는 문법범주를 통틀어 ‘양태법(modal system)’으로 이름붙일 것을 제안한다.

양태법은 이유기(2000: 140), 이선웅(2001: 318) 등에서도 이미 양태에 대한 문법범주로 제시된 바 있는 용어이다. 양태법은 서법과 달리 양태에 대한 문법범주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혼동의 여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법이 양태가 동사의 굴절형으로 실현되는 것만을 지칭했던 일반 언어학계의 관행을 고려했을 때에도, 서법을 양태의 문법범주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면 번역 및 교류 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양태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국어의 양태법은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보조사, 우언적 구성에 의해 실현된다.⁴⁾ 본고는 이를 형태적인 차원에서 동사의 굴절에

4) 구체적인 각 문법적 장치들에 대한 의미 기능에 대한 분석은 자세히 진행하지 않

의해 실현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서법과 비굴절적 양태법으로 나눈 후, 서법을 다시 의미적인 차원에서 화행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비화행적 서법과 화행적 서법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를 통한 양태법의 실현은 동사의 굴절에 의한 양태적 의미의 표현이라 볼 수 있어 서법의 범주에 속한다. 이들 중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화행적 의미와의 관련이 없는 서법은 비화행적 서법으로 칭하며,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화행적 의미와의 관련이 있는 서법은 화행적 서법으로 칭한다. 보조사와 우언적 구성에 의한 양태법의 실현은 동사의 굴절에 의한 것은 아니나 문법적 장치로서 양태법을 실현한 것으로 비굴절적 양태법의 범주를 이룬다.

2. 서법

1) 한국어에서의 서법범주

서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양태적 의미가 동사의 굴절형인 직설법, 접속법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따라서 박진호(2011: 316-318)은 서법은 문법화의 진전도가 매우 높은 경우만을 포함해야 하며 이들은 극소수의 항만으로 이루어져 그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선택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한국어에는 서법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오직 관형절이나 명사절에서의 ‘-은/을’의 대립과 ‘-음/기’의 대립만이 현실과 비현실의 체계를 구성하며 필수적으로 선택된다는 점에서 서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Bybee(1985: 169)가 양태를 여러 유형의 표현수단을 취하는 개념적 영역으로, 그리고 서법을 이 영역의 한 부분을 굴절적으로 표현한 것을 가리킨다고 정의한 것을 따라, 서법 개념의 핵심은 꼭 짜인 체계와 필수성보다는 동사의 굴절에 의한 양태적 의미의 표현으로, 즉 그 문법적

는다. 본고의 목적은 모든 문법적 장치들의 의미 기능을 소상히 밝히는 것보다는 이들을 묶어 범주화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은 고영근(1986), 윤석민(2000), 박재연(2004, 2009ㄱ, 2009ㄴ), 임동훈(2009, 2011) 등의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문법적 장치들의 의미기능을 참고하여 그 대표적인 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장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비록 양태보다는 인구어에서의 서법의 개념이 먼저 연구된 것은 사실이나 양태의 의미범주는 언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양태의 문법범주를 범주화하는 작업에서는 인구어에서의 실현 양상이 아니라 양태가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방식 자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박재연(2009: 173)에서도 언급했듯이 필수성이나 상호배제성 등은 인구어의 서법인 직설법, 가정법 등의 특징일 뿐, 이것이 양태적 의미의 동사의 굴절형을 통한 표현인 서법이라는 개념 전체에 정합적이라고 볼 수 없다. 서법을 오직 동사의 굴절로만 보는 것이 인구어 중심적이라는 견해도 있어 왔는데, 본고는 오히려 서법이 인구어의 체계와 마찬가지로 필수성과 상호배제성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인구어 중심적이라고 본다. Palmer(200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양태적 의미가 동사의 굴절형 외에도 접사 혹은 접어(clitics)에 의해 표현되기도 한다면, 동사의 굴절에 의한 양태적 의미의 표현만을 서법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문법적 장치들에 의한 양태적 의미의 표현을 다른 범주로 새로이 이름붙이는 것이, 기존에 사용해왔던 서법이라는 용어의 쓰임에도 혼란을 덜 일으키며 모든 문법적 장치에 의한 양태의 실현을 고려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에 의한 양태적 의미의 표현을 한국어에서의 서법범주로 다룬다. 또한 본고에서는 양태의 의미영역에 화행과 관련되는 부분이 존재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에 의해서 비화행적 의미가 실현되지만 종결어미에 의해서는 화행적 의미 역시 실현된다고 봐서 서법을 의미적으로 비화행적 서법과 화행적 서법으로 나눈다. 윤석민(2000)을 제외한 임동훈(2011) 등의 기존의 논의에서는 서법을 화행과 연결시켰을 때 주로 문장유형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문장유형은 서법에 포함될 수 없다.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의 양태적 의미는 화행과 관련하여 보지 않았으나, 종결어미의 양태적 의미에 대해서는 화행의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와 갖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해왔다. 따라서 화행과 서법의 연관에 대해서, 그리고 종결어미의 양태적 의미에 대해서는 화행적 서법을 논의하며 함께 논하도록 하겠다.

2) 비화행적 서법

(1)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가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견해는 고영근(1986)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영근(1986)은 국어의 서법범주에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원칙법, 확인법이 있으며 이들이 각각 선어말어미인 ‘-나-’, ‘-디-’, ‘-리-’, ‘-니-’, ‘-것-’, ‘-엇-’에 의해 표시된다고 말하고 있다. 감동법은 중세어에는 ‘-웃-’, ‘-스-’이 존재하였으나 현대어에는 종결어미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고 본다.

박재연(2004: 69)는 ‘-겠-’, ‘-으리-’, ‘-더-’, ‘-으니-’, ‘-것-’을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선어말어미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겠-’과 ‘-으리-’는 인식양태·행위양태의 다의성을 가지며, ‘-더-’, ‘-으니-’, ‘-것-’은 인식양태만을 표현한다. 이중 ‘-겠-’은 박진호(2011: 296) 등에서 미래시제의 표지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겠-’은 미래의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나 문숙영(2005: 80)에서도 정리되었듯이 과거시제의 표지 ‘-었-’과 달리 미래지시의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겠-’의 가장 두드러지는 의미는 박재연(2004: 71-81)에서 제시된 양태적 의미인 추측과 의도로 보인다. ‘-겠-’이 갖는 미래의 의미는 이러한 양태적 의미에서 추론되어 나왔을 것이라 추정한다.

한국어의 선어말어미는 고영근(1986)부터 전형적인 양태 표지로 여겨져 왔다. 구체적인 항들의 설정과 각 문법적 장치의 의미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선어말어미에 의해 양태적 의미가 표현되며 이는 서법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전성어미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은/을’과 명사형 어미 ‘-음/기’는 박재연(2004)의 논의에서는 명제의 객관적인 속성에 대한 것이라고 여겨져 양태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박재연(2009-)에서는 이들의 대립이 서실법과 서상법의 대립과 같다는 임동훈(2008)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들이 갖는 사실성-비사실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문숙영(2005: 205), 박진호(2011: 318), 임동훈(2009) 등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찾을 수 있다.

관형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에 의한 사실성-비사실성은 전통적인 서법 체

개인 서실법-서상법에 의미론적으로 부합하는 동시에 간결한 체계와 필수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박진호(2011: 318)는 이 경우만을 한국어의 서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본고에서도 이 경우를 서법으로 처리하기는 하나, 그 핵심적인 이유는 양태적 의미가 동사의 굴절을 통해 나타난다는 형태적인 측면에 있으며 선어말어미나 연결어미에 의한 서법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동훈(2009: 77)에 따르면 서실법은 상황을 실현된 것으로, 서상법은 상황을 사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기술하는 방식이다. 본고에서도 ‘-은/을’과 ‘-음/기’의 대립이 서실법과 서상법의 의미적 대립에 해당한다고 본다.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적인 정의의 서법에는 필수성이 개념적으로 정합적이지 않겠으나, 서실법과 서상법이라는 구체적인 서법체계를 논할 때에는 필수성과 상호배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은/을’과 ‘-음/기’는 동시에 나타날 수 없으며 관형절과 명사절에서 필수적으로 선택되는 닫힌 집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실법과 서상법에 해당한다.

(3) 연결어미

연결어미가 양태적 의미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고영근(1986)에서는 목적의 양태를 나타내는 ‘-고자’, ‘-려고’, 의도의 양태를 나타내는 ‘-려’를 설정한 바 있었으나, 이선웅(2001: 325)는 이들이 단지 주어의 의도나 목적을 드러내는 형태소일 뿐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박재연(2004: 62)에서는 ‘-으려고’, ‘-고자’는 의도의, ‘-을세라’는 경계의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때의 의도와 경계는 화자의 양태가 아니라 주어가 가진 양태, 즉 주어 지향적 양태라고 말하고 있다. 본고의 3.2.장에서 언급했듯이 박재연(2004)는 의무양태에 의도 등을 더한 행위 양태를 제시하였으며, 주어 지향적 양태를 준-양태형식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박재연(2009: 138)은 ‘-길래’, ‘-은들’을 통해서도 양태적 의미가 실현된다고 주장하는데, ‘-길래’의 일부 용법이 선행절 사태의 지각을 나타내며, ‘-은들’은 비사실의 양보 연결어미라는 것이다. 한편 ‘-었더라면’, ‘-었더라면’, ‘-었더라도’에 대해서는 비사실의 하위 속성인 반현실(counter-realis)을 실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존재하는 사태와는 반대되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⁵⁾

이처럼 연결어미 역시 선어말어미의 경우처럼 그 구체적인 항의 목록과 정확한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고 선어말어미나 전성어미에 비해 진행된 연구가 적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본고에서 정의한 넓은 의미의 양태가 ‘-으려고’, ‘-고자’, ‘-을세라’, ‘-길래’, ‘-은들’ 등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3) 화행적 서법

(1) 화행적 서법과 문장유형

화행적 서법은 윤석민(2000)의 문장종결법과 큰 틀을 함께하는데, 문장종결법은 종결어미를 문법적 장치로 하여 화행과 관련된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윤석민(2000: 45)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종결법이라는 용어는 서법이 오직 선어말어미만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전제 하에 서법과 대립을 이루며 쓰이고 있다.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더불어 담화 상황이 갖는 화행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양태의 의미영역은 본고와 유사하나, 선어말어미에 의한 서법과 종결어미에 의한 문장종결법을 각각 다른 범주로 둔 것이다. 윤석민(2000: 44)에 따르면 이는 각각이 담당하는 양태가 화행과 관련하여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 본고는 형태적으로 동사의 굴절형에 의한 양태의 실현을 서법으로 처리하는 입장이므로 종결어미에 의한 양태적 의미의 표현 역시 서법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각각이 담당하는 의미가 화행의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수용하여 서법을 의미적으로 다시 분석하여 비화행적 서법과 화행적 서법을 구분하는 것이다. 윤석민(2000)의 문장종결법과 마찬가지로 화행적 서법이 나타내는 의미는 설명, 감탄, 의문, 약속, 허락, 경계, 명령, 청유가 있다.

화행적 서법은 문장유형(sentence type)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임동훈(2011: 325)에 따르면 문장유형은 “일정한 문법적 형식과 화행(speech act)이 관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장 형식”으로 정의되며, 문장유형으로는 평서문,

5) 박재연(2009: 130)에서는 “내가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의 예를 들고 있다. 실제로는 가지 않았음을 표현하기에 ‘-었더라면’이 반현실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을 설정한다. 그러나 평서문과 설명이, 의문문과 의문이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Lyons(1977: 745)에 지적되었듯이 평서문은 설명도, 의문도, 명령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화행적 서법과 문장유형은 모두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그러나 문장유형에서의 경우와 달리 화행적 서법에서는 하나의 종결어미가 다양한 서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가령 임동훈(2011: 331)에서 의문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제시된 ‘냐’는 윤석민(2000: 150-151)에 따르면 전형적으로는 의문의 양태를 드러내나 설명, 감탄, 명령도 수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⁶⁾

임동훈(2011)은 문장유형을 서법범주로 보고 있다. 평서문과 의문문은 실제 세계에 말을 맞추는 것이므로 서실법에, 명령문과 청유문은 가능 세계를 말에 맞추는 것이므로 서상법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했듯이 문장유형은 화행과 관습적으로만 연결될 뿐 간접화행의 존재로 인해 문장유형이 그 문장의 화행을 보장할 수 없다. 평서문의 형식을 갖춘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실제 의미가 명령에 가깝다면, 이 문장을 서실법으로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결어미가 문장유형을 드러내는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문장유형은 양태적 의미와 관행적인 관련만 가질 뿐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종결어미는 설명, 감탄, 의문, 약속, 허락, 경계, 명령, 청유의 화행과 관련된 양태적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나 종결어미는 박재연(2004)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화행과 관련이 없는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지’, ‘-네’, ‘-구나’ 등의 종결어미는 화행을 양태의 영역에 반영하지 않은 많은 논의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양태적 요소로 처리되어 왔는데, 본고는 이에 따라 종결어미는 모두 기본적으로 화행적 서법을 표현하되, 몇몇 특수한 종결어미들은 이에 더해 화행과 관련이 없는 양태적 의미도 함께 표현한다고 기술하고자 한다. 하나의 문법적 수단을 통해 두 층위의 양태적 의미가 동시에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윤석민(2000: 151)에서는 “나 혼자 그 일을 어떻게 하나.”에서의 종결어미 ‘냐’는 설명을, “어쨌, 하늘 색깔이 이렇게도 맑고 푸르냐.”의 ‘냐’는 감탄을, “소리 좀 줄이지 못하겠냐?”의 ‘냐’는 명령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2) 종결어미

박재연(2004: 210-211)은 ‘-지’, ‘-을까’, ‘-을걸’, ‘-네’, ‘-구나’, ‘-군’, ‘-구만’, ‘-거든’, ‘-다나’, ‘-다면서’, ‘-을래’, ‘-게’, ‘-을라’, ‘-어야지’를 양태 종결어미로 제시하고 있다. 박재연(2004)는 화행을 양태의 영역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화행과 관련되는 의미로 분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박재연(2004: 154)에서의 종결어미 ‘-지’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종결어미들은 같은 문장유형에 속하는 무표적인 문장과 비교를 통해서도 그 의미가 밝혀지고 있다. 종결어미 ‘-지’는 행위 양태 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 약속이나 청유, 명령과 같은 화행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표적인 약속문, 청유문, 명령문과는 달리 ‘-지’가 사용된 문장은 부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문장유형의 관점에서 기술해서는 안 되고, 동작주에 따라 구별되는 제안의 의미를 ‘-지’가 갖는다고 보아 이를 양태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입장에서는 약속, 청유, 명령과 같은 화행적 의미는 양태적 의미에 포함되며, 따라서 ‘-지’가 갖는 의미는 이러한 양태의 화행적 의미를 기본으로 하며 박재연(2004)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동작주에 대한 제안, 즉 비화행적 양태의 부가적 의미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박재연(2004)에서 제시한 종결어미들을 모두 화행적 의미와 비화행적 의미와의 결합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구나’나 ‘-네’와 같은 종결어미는 전형적인 양태의 요소로 설명되었던 것인데, ‘-구나’는 박재연(2004: 168)에서 지각 및 추론, 그리고 새로 앎의 양태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며, ‘-네’는 박재연(2004: 165)에서 지각, 새로 앎의 양태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구나’와 ‘-네’는 동시에 설명 혹은 감탄의 화행적 서법을 기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⁷⁾

따라서 한국어의 모든 종결어미는 그것의 문장유형과는 관련 없이 화행적 서법을 갖게 되며, ‘-지’, ‘-네’, ‘-구나’ 등의 몇몇 특수한 종결어미들은 이러한 화행과 관련된 양태적 의미에 더해 화행과 관련 없는 양태적 의미를 부가적으로 함께 실현한다. 가령 화행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양태 체계에서는 무

7) 감탄을 설명과 독립하여 하나의 범주로 세울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윤석민(2000: 125)에서는 감탄의 의미와 기능이 설명과 엄밀하게 봤을 때 차이가 나며 각각을 나타내기 위한 종결어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감탄을 독립적인 범주로 다루지만, 다른 범주들과는 달리 설명과 감탄의 의미는 그 유사성이 크다고 보인다.

표적인 종결어미로 처리되었을 ‘-다’ 역시, 윤석민(2000: 124)의 표와 같이 전형적으로는 설명의 양태를 드러내며, 수의적으로 감탄, 의문, 약속, 경계, 명령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비굴절적 양태법

1) 비굴절적 양태법의 정의

비굴절적 양태법은 동사의 굴절이 아닌 요소에 의해 양태적 의미가 실현되는 문법범주를 의미한다. 본고는 양태의 화행적 의미가 오직 종결어미를 통해서만 실현된다고 보므로, 비굴절적 양태법은 서법과 달리 의미적으로 하위 부류를 갖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동사의 굴절형이 아닌 문법요소 중 양태적 의미를 실현하는 것으로는 우언적 구성과 보조사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을 문법범주로 처리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우언적 구성을 문법요소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2.2.장에서 제시하였듯이 기본적으로 우언적 구성 역시 문법범주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문법화의 진전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도 이를 문법범주의 장치로 처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언적 구성에 의한 양태적 의미의 문법적 실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양태적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물론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 우언적 구성이 문법범주의 장치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조사는 그것이 양태적 의미를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어미에 의한 것과는 달리 맥락에 의한 함축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이 임동훈(2008: 233)에서 제시되기도 하였다.

2) 우언적 구성과 보조사

본고에서는 2.2.장에서 이미 논의하였듯이 우언적 구성은 문법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형태로 어휘적 요소가 남아있지만, 단힌 체계를 이루며 특정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전형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를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로 본다. 따라서 임동훈(2008: 232)에서 제시하는 ‘-을 것 같-’, ‘-을 수 있-’, ‘-어야 하-’, ‘-어도 되-’ 등의 우언적 구성은 추측과 의무, 허가의 양태적 의미를 실현하기에 비굴절적 양태법에 포함될 수 있다.

청자가 이미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지 않-(-잖-)’의 경우는 위에서 제시한 우연적 구성들과는 달리 비굴절적 양태법에 속하지 못한다. 박재연(2004: 149)에 따르면 ‘-지 않-(-잖-)’은 뒤에 ‘-니’, ‘-습니까’와 같은 의문형 종결어미나 여러 문형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종결어미인 ‘-어’만이 결합할 수 있다. ‘-지 않-’은 ‘-잖-’으로의 문법화 과정을 겪고 있으나 아직 진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두 형태가 공존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잖-’을 하나의 선어말어미로 처리하는 것에도, ‘-지 않-’을 문법요소로 쓰이는 우연적 구성으로 처리하는 것에도 난점이 있다고 본다.

고영근(1986: 257)에서는 ‘까지’, ‘조차’, ‘마지’, ‘도’, ‘그래’, ‘그려’의 보조사들이 양태적 의미를 갖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선웅(2001: 330)에서는 ‘요’, ‘조차’, ‘마지’, ‘까지’, ‘(이)나’, ‘(이)나마’, ‘(이)야’, ‘그려’, ‘그래’ 등의 보조사가 양태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중 상대높임법에 해당하는 ‘요’가 나타내는 의미는 본고의 양태에 속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선웅(2001)은 이러한 보조사들이 정감양태 중 명제 이외의 요소에 대한 것들을 실현하는 요소라고 봐 화자의 평가 혹은 감정을 표현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임동훈(2008: 233)에서 지적하듯이 이러한 조사들이 보이는 양태적인 의미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함축일 가능성이 있기에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⁸⁾

V. 결론

본고에서는 양태와 서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폭넓게 살펴보고 한국어에 체계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범주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논의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양태는 전형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범주로 정의되어 왔으며, 그 영역 안에는 화행과 관련된 의미가 포함된다. 양태는 하위부

8) 임동훈(2008: 232-233)에서는 “인수까지 왔다.”와 “(10명 중에서) 인수까지 왔다. 이제 3명 남았다.”의 두 문장을 비교하며 전자의 문장에서의 ‘까지’는 가능성이 낮아 예상할 수 없었다는 뜻을 드러낼 수 있지만 후자의 문장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보조사 자체가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의한 함축으로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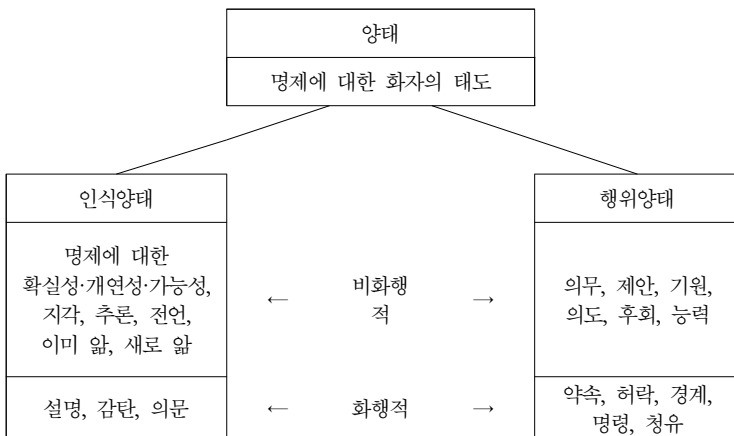
류로 인식양태와 행위양태를 가지며, 화행과 관련된 설명, 감탄, 의문, 약속, 허락, 경계, 명령, 청유도 양태에 포함된다. 이들 중 설명, 감탄, 의문은 인식양태에, 약속, 허락, 경계, 명령, 청유는 행위양태에 속한다.

양태의 문법범주로 정의되어 온 서법은 그대로 한국어의 체계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용어로 보인다. 양태가 서법만을 통해서 문법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태의 문법범주는 양태법이라 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서법은 전통적으로 양태의 의미영역을 동사의 굴절형으로 나타내는 것을 지칭하였기에, 한국어에서도 역시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에 의해 양태적 의미가 표현되는 것을 서법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우언적 구성이나 보조사와 같이 동사의 굴절형이 아닌 형태에 의해 양태적 의미가 표현되는 것은 비굴절적 양태법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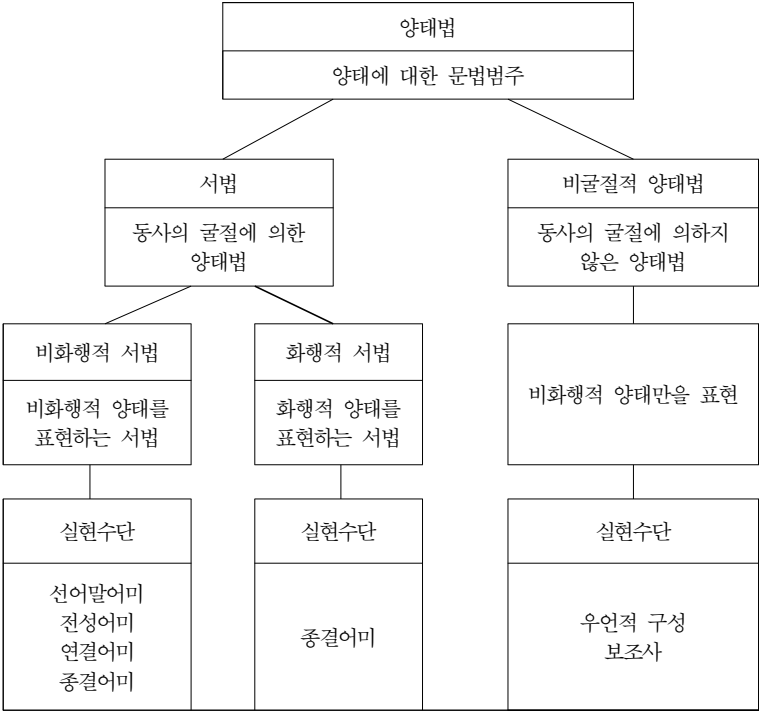
서법은 다시 그 의미가 화행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화행적 서법과 화행적 서법으로 나뉜다. 비화행적 서법은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되며, 화행적 서법은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의미범주로서의 양태와 그에 대한 문법범주인 양태법의 체계는 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로 나타낼 수 있다.

본고는 이처럼 양태의 정의를 다시 살펴 그 의미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양태의 문법범주로 양태법을 제시하였으며, 양태법을 1차적으로는



<그림 1>



〈그림 2〉

동사의 굴절에 의한 실현여부라는 형태적인 기준으로 서법과 비굴절적 양태법으로 구분하였으며, 2차적으로 화행과의 관련여부라는 의미적인 기준으로 서법을 비화행적 서법과 화행적 서법으로 나누었고, 각 양태법이 어떠한 문법적 장치로 실현되는지를 기술하고자 했다. 이러한 본고의 시도는 한국어에 적합한 양태 및 양태법의 용어를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지며, 양태법을 문법적인 기준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술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는 각 문법적 장치들의 구체적인 항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의 의미기능을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들이 양태법의 체계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기에, 구체적인 문법적 장치 개개에 대한 논의가 매우 얇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고영근 (2004), 『단어, 문장, 텍스트 보정판』에 실림, 247-263.]
- 남기삼(1972), 현대국어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55·56·57, 국어국문학회.
- 남기삼(2001),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 문숙영(2005), 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2009ㄱ), 연결어미와 양태, 『한국어의미학』 30, 한국어의미학회.
- 박재연(2009ㄴ),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그 문법 범주,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 윤석민(2000),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 이선영(2014), 명제와 양태, 『한국어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 이선웅(2001),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서울대학교.
- 이유기(2000), 현대 국어의 문체법, 『동악어문학』 36, 동악어문학회.
- 임동훈(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 임동훈(2009), ‘-을’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 Bybee, Joan 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Benjamins.
- Fillmore, Charles J.(1968), The Case for Case, in: Emmon Bach and Robert T.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Holt, Rinehart and Winston, 1-88.
-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George Allen and Unwin LTD, [이환목 · 이석무 역(1987), 『문법철학』, 한신문화사.]
- Palmer(2001), Mood and modality,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